

碩士學位論文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2005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金 美 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沈美子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compositional Hair Style
approach in Deconstructionism

2004年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金 美 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沈美子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compositional Hair Style
approach in Deconstructionism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金 美 香

金美香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12月

심사 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21세기에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우리사회는 신념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위해 개성화·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술에 있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형식적인 스타일을 해체하거나 거부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정신적 영감에 근거하여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예술작업을 통해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조적인 실험 주의적 시도를 통한 기존의 의미들의 재해석으로 다양한 형식의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해체주의는 조형예술인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주면서 성의 해체, 민족의 해체, 기존방식의 해체로 분류되어 나타나지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게 되었다. 또, 기존의 상식을 뛰어 넘는 창의적 디자인 접근은 일반 구성형식에서 벗어난 결과 헤어스타일에서 탈구성적 해체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변화 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기존 가치관의 혼란, 비자연적인 물질문명에 대한 반발로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에로의 회귀에 대한 욕구, 그 전에 기준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인식과 사고의 전환으로 해체됨에 따라 나타난 현대 헤어스타일에서의 다양한 해체현상을 알아보았다. 또한 해체주의의 표현방식 중 탈구성적 디자인 접근을 통해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 디자인의 특성을 헤어 트렌드에 나타난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구성적 헤어스타일이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디자인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스타일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디자인의 발전과 가치성에 도움이 되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들이 창출되어지기를 바란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내용	2
II. 이론적 배경	3
1. 해체주의의 형성배경 및 배경	3
2. 데리다의 해체주의	6
3. 해체주의 디자인	10
III. 해체주의와 헤어스타일	13
1.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	13
1) 성의 해체에 의해 나타난 헤어스타일	13
(1) 여성의 남성화	14
(2) 남성의 여성화	18
(3) 제 3의 성	22
2) 민족주의가 해체되어 나타난 헤어스타일	27
(1) 아프리카 풍	27
(2) 동양 풍	33
(3) 인디언 풍	38

3) 기존 방식이 해체되어 나타난 헤어스타일	43
(1) 핑크 스타일	43
(2) 키치 스타일	53
2.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탈구성적 해체경향	57
1) 헤어 조형의 개념 및 특성	57
2) 기존의 구성적 헤어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	62
3) 탈 구성적 해체주의의 헤어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	66
4)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탈구성적 해체사례	67
IV. 결론 및 제언	78
참고문헌	81
ABSTRACT	85

표 목 차

〈표 1〉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5
---------------------------	---

그 립 목 차

〈그림 I - 1~2〉 해체주의 건축	12
〈그림 II - 1~6〉 여성의 남성화 헤어스타일	16-17
〈그림 III - 1~6〉 남성의 여성화 헤어스타일	20-21
〈그림 IV - 1~6〉 제 3의 성 헤어스타일	25-26
〈그림 V - 1~10〉 아프리카 풍 헤어스타일	30-32
〈그림 VI - 1~12〉 동양 풍 헤어스타일	35-37
〈그림 VII - 1~12〉 인디언 풍 헤어스타일	40-42
〈그림 VIII - 1~16〉 핑크 헤어스타일	48-52
〈그림 IX - 1~8〉 키치 헤어스타일	55-56
〈그림 X - 1〉 라인을 표현한 헤어스타일	59
〈그림 X - 2〉 2차원의 기하학적 모양	60
〈그림 X - 3〉 3차원의 기하학적 모양	60
〈그림 X - 4〉 색상을 표현한 헤어스타일	61
〈그림 X - 5〉 질감을 표현한 헤어스타일	62
〈그림 X - 6〉 기존의 구성적인 헤어스타일	64
〈그림 X - 7〉 솔리드형	64
〈그림 X - 8〉 그라듀에이션형	65
〈그림 X - 9〉 인크리스 레이어형	65
〈그림 X - 10〉 유니폼 레이어형	66
〈그림 XI - 1~24〉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69-7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0세기 이후 인간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헤어스타일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졌으며 비달사순(Vidal Sasson)의 등장은 헤어 컷트에 조형의 원리를 접목하여 헤어가 디자인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그 이후 헤어스타일은 토털패션의 한 분야로 혹은 헤어스타일 그 자체만으로도 비중이 점차 커져 해마다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 받는 예술사조가 헤어 트렌드(Hair Tend)에 반영되어 발표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체주의는 복식과 건축을 포함한 조형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조형사조의 변화는 기존의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개념을 형성한다.

근원주의적인 비판에서 시작하는 해체주의는 '차이',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 '탈 중심화' 등의 개념으로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등 모든 것을 해체시킨 철학 사상이다.

헤어스타일도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기하학 조형의 원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헤어스타일에 반영되고 있는데 어시메트릭 스타일(Asymmetric style)이나 디스커넥션 스타일(Disconnection style)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스타일들은 틀을 벗어난 디자인으로서 기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디자인 접근 방법의 제시를 통해 디자인의 가치성과 발전성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사조를 반영한 해체주의가 헤어스타일에 수용되면서 어떤 변화를 주었고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해체주의가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끼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해체주의의 표현방식 중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해체현상을 연구하여 다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절대적 가치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창의적이며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논문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해체주의의 사상에 대한 개념 및 특성들에 대해 알아본 후 해체전략과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다.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들을 성의 해체, 민족의 해체, 기존방식의 해체로 나타난 헤어스타일로 나눈다. 그리고 해체주의의 디자인 접근방식 중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헤어 트렌드에 나타난 사례들을 연구한다.

또한, 패션잡지, 헤어잡지, 헤어 사이트, 신문 등에서 자료를 얻어 헤어스타일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내용을 밝힌다.

제 II 장 1절에서는 해체주의의 사상에 대한 개념 및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고, 2절은 데리다의 해체전략, 3절은 해체주의의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 III 장 1절에서는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들을 성의 해체에 의해 나타난 헤어스타일로 여성의 남성화와 남성의 여성화, 양성 이 모두 존재하는 제 3의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민족주의가 해체되어 나타난 헤어스타일로 아프리카 풍, 동양 풍, 인디언 풍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존방식의 해체로 나타난 헤어스타일을 핑크 헤어스타일과 키치 헤어스타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2절에서는 헤어조형에 대한 개념과 기존의 구성적인 헤어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구성적 디자인이 헤어스타일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헤어 트렌드를 위주로 헤어스타일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체주의의 형성배경 및 개념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s)대학에서 열렸던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The Language of Criticism in the Science of Man)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데리다(Jaque Derrida)¹⁾는 ‘인문학의 예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와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해체주의’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였다.

이 논문에서 데리다는 구조주의자들의 구조나 기호라는 개념은 의미의 ‘중심’이 현존(presence)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조나 기호의 내면에는 그것들에게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어떤 중심 - 곧 고정된 근원, 진리, 목적, 절대가 현존한다고 구조주의자들은 믿고 있으나 그러한 의미는 중심 - 데리다의 용어로 말하면 초월적 지시대상이나 절대적 진리는 다만 하나의 환상이요, 자취이며 대체물일 뿐이라고 한다(김성곤, 1988 : 13-14).

이 이론은 플라톤 이래의 서구의 형이상학 근본에 대한 강력한 반기였고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문이었다. 그 후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사회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키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여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는 충격적인 이론이었다(정성교, 1991 : 53).

따라서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는 탈구조주의 혹은 구조주의²⁾의 한계

1) 자크 데리다(J. Derrida) : 1930년 프랑스령 수도 알제리 근교에서 스페인계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 고교시절까지 그곳에서 성장했다. 19세 때 대학진학을 위해 프랑스로 옮겨와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저서로는 <입장들>, <그라마톨로지>, <여백> 등이 있다.

김상환(1996).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 문학과 지성사. pp.161-168.

2) 구조주의(Structuralism) : 구조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형식적 관계체계를 중시하여 구조 안에서 어떤 요소가 독립적 의미를 갖지 않고 그 요소를 엮어매고

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의 사상 중 하나로 철학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의어라 해도 무방하다(권택영, 1992 : 9).

‘해체’라고 우리말로 차용해 쓰는 용어지만 사실 ‘Deconstruction’이라는 단어에는 아직 적당한 우리말 번역이 없다. 이 단어에 대한 적당한 우리말 대역어를 찾는다는 것이 가장 반(反)디컨스트럭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Deconstruction’이라는 말이 기존의 언어체계 속에서 생생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자기동일적 의미만을 갖게 하는 것을 비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해체’라는 용어를 통해 ‘Deconstruction’을 정의한다면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자의 모든 이론과 사상 그리고 진리에 대한 학설들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원선영, 2000 : 4).

해체주의의 성립과정은 철학적 측면에서 프랑스 포스트구조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주의에 내재해 있던 포스트 구조주의적 요소가 구조주의의 전개과정에 점차 외면화, 이론화되고 방법적으로 세련화를 이룬다. 구조주의 내에 있던 소쉬르(F, Saussure)언어관³⁾ 및 바르트(Roland Barthes)⁴⁾,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e-Strauss)⁵⁾등의 구조 특성들을 해체함으로써 구조주의에 대한 외부적인 부정이나 비판이라기보다는 구조의 태내에 애초부터 존재하고 있던 자기 모순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계기의 심화 발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정용교, 1991 : 54).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성곤, 1988 : 5).

첫째,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한다.

있는 형식아래서 오직 의미를 지닌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자아는 주체 등 개인의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행위를 객관화, 규격화, 조직화시키려 했다. 구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현대예술은 표현보다 형식, 형태의 창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김형효(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 민음사, pp. 81- 84.

3) 소쉬르(F, Saussure)는 스위스의 언어학자로서 그의 「일반 언어학 강의」는 구조주의의 사상적 기원으로 간주되며, 오늘날 과학적 언어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의상을 개인의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의상체계’로서 보고 작가들의 글쓰기 역시 개인의 독창적인 작업이 아닌 ‘언제나 이미 씌어진’문화 체계 내에서 작업한다.

5) 부락민들의 개인적인 특성들은 그 부락 전체의 문화적 체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둘째, 사고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하며 인본주의적 태도를 지향한다.

셋째,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며 과거를 향수가 아닌 탐색의 대상으로 대한다.

넷째, 자아와 주체를 중요시한다.

다섯째, 절대적 진리나 센터(Center)의 근원과 회포는 거부하며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타자(他子)’를 인정하고 포용한다.

여섯째, 모든 기호(언어)와 그것들의 재현(Representation)능력을 불신한다. 위의 개념적 특성들을 구조주의와 연관 지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언어	언어의 우월성 재현능력 인정	언어의 우월성 거부 재현능력 거부
학문	경직된 과학적 태도	인본주의적 태도
개체	개체 특성 무시	개체의 존엄성
주체	주체와 구조의 상호의존성	인간주체, 자아에 회의
역사	하나의 구조를 분리해 내는 과정상 역사를 무시하는 비역사적 태도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에 새로운 관심표명, 과거는 향수가 아닌 탐색 대상
텍스트	비개성적 행위	텍스트와 독자의 역동적 관계
틀	체계성, 조직성, 전체성, 미분법적인 사고 강조	체계성, 전체성 거부, 타자의 인정, 로고성 중심주의 거부, 미분법적인 사고 거부
조형적 특성	기하학적 사고/유클리드기하학	충돌, 붕괴, 비정형주의
	절대론적 사고/중력의 힘에 맞는 견고한 형태	반중력 건축
	기계론적 사고/형태의 간결성	역동적, 파생적 형태

2. 데리다의 해체주의

해체주의는 1960년대 후반 자크 데리다에 의해 철학에서 논의 되었다. 현재의 서구사상에 영향력을 미쳤고 최근의 비평이론들 중에서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철학 및 문학이론, 역사학, 정신분석학, 법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탈 중심화, 차연, 산중, 상호텍스트성, 열린사회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언어와 기호의 재현성과 로고스 중심주의⁶⁾,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닫힌 체계를 거부하고 열린 사고를 추구한다(원선영, 2000 : 8).

즉 형식주의적이고 관념주의적인 가정으로부터의 형이상학적 유산은 철학과 신학을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e)에, 언어학을 ‘음성적 문자의 형이상학(metaphysique de l’écriture phonétique)’에 빠지게 했다(이광래, 1989 : 11 - 12). 로고스중심주의의 근본개념은 이항대립⁷⁾ 구조이고, 이념화 과정에서 기원으로 돌아가거나 보다 선행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순수하고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에 데리다는 문자언어를 음성적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증함으로써 ‘로고스중심주의=음성중심주의=현전의 형이상학’이라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관계를 해체시키려 했다(이광래, 1989 : 375 - 376).

데리다는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주장한다. 서구의 형이상학이 지배해 온 근원주의와 이성 중심주의에

6) 로고스 중심주의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전제가 되었던 음성을 문자보다 우위에 위치시키는 사고방식을 일컫는 말인데, 데리다는 문자언어를 음성언어의 ‘보충(Supplement)’으로 여겨 순전한 음성적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증함으로써 ‘로고스 중심주의=음성중심주의=현전의 형이상학’이라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해체하려 하였다.-Christopher Norris(1996). 청람, p.88.

7) 이항대립 : 파롤(Parole-음성언어)/랑그(문자언어), 진리/허위, 시니피앙(signifiant-의미하는 것)/시니피에(signifié-의미된 것), 통시성/공시성, 스피치/글, 객체/주체, 수동성/ 능동성.

서 생겨난 ‘절대 기준’이란 없으며, 모든 인간의 인식과 지식은 불확실한 것으로 수용된다(윤소정, 1996 : 4 - 5). 해체주의 이론은 의미 체계의 불확실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단히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하여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탐색인 것이다(김주현, 1999 : 10).

결론적으로 해체주의란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함으로써 문학 비형의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적 의미의 근원 해체와 모든 결론의 유보를 통해서 개념이나 진리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 상황의 불확실성 혹은 불확정성 및 불안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지배문화로부터 잊혀지고 소외당한 타자를 인정하여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열린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즉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져왔던 ‘타자’를 인정하며, ‘불안정함’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체주의가 파괴(Destruction)가 아닌 해체(Deconstruction)인 이유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의 내부에서 해체 혹은 탈구축하기 때문이다(김지연, 1997: 11).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산중’, ‘흔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De 탈 현상’등을 들 수 있으며, 선행연구⁸⁾에 따라 디자인 개념에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해체주의의 특성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De 탈 현상’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차연(差延)

데리다는 영어의 Differ(구별하다, 다르다)와 Defer(연기하다)의 뜻을 동시에 지닌 불어 동사 Differer에서 Differance(차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

8) 김아진(1998), 김주영(1995), 경은주(1996), 서경희(1998)은 해체주의 특성을 상호텍스트성, 탈중심·탈구성,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하였고, 김혜정(1998),김지연(1997),김주현(1999)은 이것에 차연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다(크리스토퍼 노리스 외 1인, 1996 : 89). 이는 차이(difference)의 개념에 '지연하는, 연기하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차연(差延)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것을 말하므로, 시공간의 초월과 수평 수직의 대립관계 파괴, 시공간의 개념 해체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연의 논리는 동시성의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김형호, 1993 : 87).

차이와 차연이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에 의해 미묘한 차이를 가늠하는 것을 뜻한다. 차이는 개성화, 즉 지위나 명서 추구의 선호에 기반을 두고 사물 및 재화에 기반을 둔다. 차연은 개념의 또 다른 특징인 확산에 기초하여 통신 발달에 의한 이미지나 문자의 동시적인 확산을 뜻한다.

2)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

데리다의 해체이론에 의하면 세계는 하나의 텍스트이므로, 자율적인 존재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조말희, 1997 : 54).

이분법에 대항한 해체주의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 가능하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는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여, 언술 행위의 형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론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김현미, 2000 : 11).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용도 등 모든 것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인다. 한 예로, 급격한 산업화 현상은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을 붕괴하였다. 성의 상호 텍스트성은 '남성다운', '여성다운'과 같은 성의 요소를 해체하여, 성 역할에 따른 차이를 무효화시킨다. 성에 대한 진리와 절대를 불신하고 대립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성에 대한 시각을 해체한다. 성의 상

호 텍스트성은 성을 자유롭게 융합시켜 일방적인 성이 아닌 공유하는 성, 동등한 성, 개방된 성, 적극적인 성 이라는 의미에서 제 3의 성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낸다. 제 3의 성은 남·녀의 성이 서로 독립적인 성이 아니다. 제 3의 성은 남성에서의 여성적 이미지, 여성에서의 남성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성을 일컫는다. 앤드로지니(Androgyny) 즉 양성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주현, 1999 : 16-17).

3) 불확정성

해체주의는 기호의 재현성이 상실되면서 로고스 중심주의, 이분법이 해체됨에 따라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통합되었다.

해체된 텍스트는 그 자체의 불안정성과 비확정성에 의해 의미는 무한한 산중(Dissemination)⁹⁾을 향해 열리는데, 이는 의미의 불확정성의 시발(始發)이 된다.

데리다에 의하면 ‘의미’란 주관적인 허구적 구조물로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게 될 때, ‘의미’는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多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의미의 불확정성은 ‘차연’의 해체전략을 토대로 형성되고, 모든 개념들은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키며 상대적인 개념 하에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김주현, 1999 : 12).

결국 불확정성은 미완전성이나 비결정성의 한계로 인해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며, 그 의미들은 산중시키는 해체주의의 특성인 것이다.

4) DIS·DE 탈현상

탈구성은 분해·분석된 텍스트들이 무작위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9) 산중(Dissémination) : 어원상 종자(種子,semence)가 원래 태어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흩뿌려 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데리다는 이 단어를 제목으로 한 《La Dissemination》에서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종자는 현존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의 근원을 말하는 것으로 다의성(Polysémie)대신 사용한다.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서울 : 교보문고. p.375.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조형’이라는 개념을 기능이나 경제적 혹은 기술적·실용적 관점에서 구성하지 않고, 변위나 간격을 두는 행위의 과정으로 본다. 새로운 구조체계를 구성하기보다 처음의 구조를 음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반 가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외부로부터 붕괴시키지 않고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것이다(임광숙, 1998 : 82-85). 즉 임의성, 혼란, 무 조직성을 이용하여 통일성, 전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구성은 1960년대 이후부터 억압된 것의 복귀 현상으로 탈 중심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탈 중심(De-centralize)은 反 중력적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부정성의 논리로부터 나왔으며(김지연, 1996 : 19)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으로써 열린 세계,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3. 해체주의 디자인

시대마다 유행사조는 사회·문화적인 의의를 갖는다. 구성주의가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문화의 한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가가 문제였다면, 해체주의는 디자인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흐름에 맞추면서 점진적인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임광숙, 1998 : 29).

해체주의 디자인에는 60년대 문학의 변화와 철학의 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해체주의 디자인이란 해체의 철학적 근본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써, 기존가치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파괴를 디자인 분야에서 시도하는 상황 및 시도된 결과물을 말한다. 해체주의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의 존재성을 위해 ‘해체’의 은유적 형태를 취하지 않으며, 실지로 해체 자체는 어떤 사물의 은유적 유형도 아니다. 오히려 해체와 디자인 사이의 관계는 특정한 사고 내에서 발생하며, 원칙적으로는 이는 어떠한 규범적 관습과 그로 인한 재조사를 위한 목표를 강요하는 지배적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김민수, 1994 : 170). 그러므로 해체주의 디자인은 모든 법칙을 깨고 근본부터 해체하여 현

대의 비정형적인 세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다(Dada)¹⁰와 같은 모더니즘과 맥을 같이하여, 기존의 상황을 변형·왜곡하여 인용한다는 점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희’와 유사하다. 다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칭적이고 관습적인 디자인과 그것이 제시하는 인지 가능한 세계도 거부하며, 동시에 환원적인 기능적 형태도 거부하는 것이다(윤도근, 1991 : 42).

원래의 철학적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서 해체주의의 움직임은 주위에서 확인되어질 만큼 양식으로 반영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건축, 산업디자인, 시각 디자인, 패션 등에서 보이는 각각의 디자인 스타일들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일관된 설명을 부여하기 곤란할 정도로 해체의 개념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서경희, 1998 : 26).

예를 들면, 해체주의 건축<그림 I - 1>은 기존의 미학이나 거주·공간·기능성과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배제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개념의 공간과 형태, 건물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비정형적이고 엄격하지 않은 것과 강한 대비를 이룬다.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humi)의 철학적, 심리적, 영화적인 모든 상징들이 적용된 라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lette)<그림 I - 2>은 건축운동이나 양식이 아닌 건축의 한계를 해체하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로서 추미는 서양건축의 이념인 질서, 기능, 오더(Order)등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도 건축물을 이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해체주의 건축이 기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루어진 작업은 형태의 유희이다.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여 단편화시키거나, 단편들을 콜라주(collage)하여 형태를 변형, 조합, 중첩, 회전, 전치시킴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여(<http://archihoony.cn.co.kr>), 데 스틸(De Stijl)이 추구한 수직-수평의 원리와 순수 기하학적 구성을 철저히 비판, 해체한다(임광숙, 1998 : 35).

또한 해체주의의 선구자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평범한 소변

10) 다다(Dada) : 어원은 장난감 말. 1915년 쥐리히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으로서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반 전통(anti-tradition), 반 예술적((anti-art), 반 기성(anti - establishment)성격을 띠었던 이 운동은 우스꽝스러움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을 모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기를 뉴욕의 전시회에 “분수(Fountain)”라는 제목으로 출품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작품 그 자체의 지위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하여 모든 범주에 대한 전복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해체주의 작품은 기존의 양식 구조에 대체하는 구조로 해석되기 보다는 구조관계 사이의 유희이며, 의외의 것이 침투하여 본래의 의미를 부재 시킨다(Stangos, : 256-257).



<그림 I-1> 해체주의 건축
「 <http://blog.naver.com>」



<그림 I-2> 라빌레뜨 공원
「 <http://blog.naver.com>」

Ⅲ. 해체주의와 헤어스타일

1.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

해체주의는 그 동안의 경직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함으로써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키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려는 충격적인 것이다.

해체주의는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졌던 ‘타자(他者)’를 인정하며 ‘불안정함’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려 한다. 또한 전체성과 구조화된 체계에 억압받는 ‘개체’의 해방과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열린사회’를 지향한다(김혜정, 1998 : 10).

본 장에서는 해체주의가 헤어스타일에 수용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의 해체, 민족주의 해체, 기존 방식의 해체로 분류해보고, 헤어스타일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의 해체에 의해 나타난 헤어스타일

성의 해체란 데리다의 해체이론 중 상호텍스트를 말한다. 이는 남·여의 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켜 성의 차이를 무효화하고 진리와 절대를 불신하고 대립함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성에 시각자체가 해체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간주되는 반대되는 성 텍스트성의 아이টে를 상대의 성에게 적용시킴으로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해체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헤어스타일에 나타나는 성에 대한 사회적 상징성과 성 정체성의 정의로부터 해체하여 나타나고 있다.

성의 해체에 의해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 그리고 제 3의 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1) 여성의 남성화

20세기 여성의 직업적 역할에 의한 실용성 추구로 여성들의 위치가 더욱 확실하게 확립되고 다양한 직업과 사회참여가 늘었으며 여성 의식변화로 인한 여성운동 등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는 남·여 성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되어 오던 경계를 무너뜨렸고, 여성의 남성화 경향은 남성에 대한 ‘복종 의식’을 거부한다는 심리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박영수, 1997 : 28).

남성·여성이라는 성으로 패션을 나누는 이분법이 사라지게 되면서 성에 대한 이분법 해체현상이 복식에 더욱 잘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동안 많은 변화가 없었던 여성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성을 구별해주는 도구로 이용됨을 거부하고, 성 정체성으로부터 해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 주었다(조미영, 1999 : 17).

여성의 남성화 현상의 헤어스타일 특징은 전형적으로 남성적 요소라고 고정 관념화되어 온 구레나룻¹¹⁾와 짧은 컷, 단발의 아이템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짧은 머리는 여성들에게 느껴지는 성 역할의 특성을 해체시켜 남성들에 대한 남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도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과 복종의식을 거부한다는 심리적 표현을 표출한 것으로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을 내포한다(그림Ⅱ- 1, 2, 3). 또, 남성이라는 성에 관련된 외모를 결정하는 단서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인 이분법의 해체현상을 표현한 예이다.

단발아이템의 대표인 보브 스타일(Bob style)은 고대 이집트 시대의 머리 형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왕과 왕족이 단발 가발을 많이 사용하였고, 노예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장식하여 단발의 형태를 만들었다(신상욱, 1992 : 20).

보브 스타일은 근세까지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던 스타일로 1·2차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면서 활동하기 쉬운 헤어스타일을 원하던

11) 구레나룻 :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남성들의 권위와 남성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용되었다.

여성들에 의해서 간편성과 여성의 권리를 담은 이튼 크롭(Eton crop)¹²⁾과 더치 보브(Dutch bob)¹³⁾같은 헤어스타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보브 스타일은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인 사회관습과 종교적인 장애를 과감히 무너뜨리고, 1920년대에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 되었고, 오늘날 여성들에게 자유분방하고 역동미를 느끼게 하는 단발로 유행하고 있다(그림 II- 4).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차용함으로써 여성성을 버리고 이성과 합리성,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짧은 스타일을 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림 II-5)는 남성의 상징인 구레나룻의 선을 유지하면서 짧은 헤어컷을 함으로 인한 성의 해체를 들 수 있다. (그림 II- 6)은 구레나룻 선을 길게 표현한 헤어스타일이다.

12) 이튼크롭(Eton crop) : 이튼, 영국의 유명한 이튼 칼리지(Eton college : 7공립학교 중의 하나)의 근처로 런던의 서부 35km에 있는 고도, ‘크롭프’를 깎아 들어간다. 가위로 자른다는 뜻, 헤어스타일의 일종으로 소년풍의 ‘보브’ 또는 속말로 ‘햅번 스타일’이 이에 속한다.

13) 더치보브(Dutch bob) : 머리둘레를 컷밥 길이로 균등하게 또 앞머리도 가로로 곧바르게 컷트한 스타일 ‘더치컷트’라고도 한다.



<그림 II-1> 남성적인 짧은
컷을 차용한 헤어스타일
「<http://www.wella.co.kr>」



<그림 II-2> 남성적인 짧은 컷을
차용한 헤어스타일
「<http://www.peluquerias.co.kr>」



<그림 II-3> 남성적인 짧은
컷을 차용한 헤어스타일
「Vidas Sasson und das
Bauhous. fig.24(1980)」



<그림 II-4> 보브스타일
「Estetica, 2004. 4」



<그림 II-5> 구레나룻을 차용한 헤어스타일
「Vidas Sasson und das Bauhaus. fig.98(1980)」



<그림 II-6> 구레나룻을 차용한 헤어스타일
「<http://www.peluquerias.co.kr>」

(2) 남성의 여성화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르는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가사 분담의 공동화 확대로 남·녀의 고정된 성 역할 붕괴가 이루어졌다. 성의 이분법에 대한 기존의 테두리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남성들은 여성들이 종전의 구속으로부터 탈피한 것을 부러워하였고, 성차별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자신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김동일, 1993 : 29) 남성의 여성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남성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상징인 긴 머리 스타일, 액세서리 착용, 포니테일(Ponytail)¹⁴, 염색을 이용하여 여성의 외모와 비슷하게 연출함으로써 남성에게 주어지는 성역할을 해체시켜 남성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의 회피와 여성들이 항상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동경하던 남성이 헤어스타일을 여성화함으로써 여성과의 동등성을 찾으려고 하는데서 나타난 것이다(조미영, 1999 : 29).

남성의 긴 머리 스타일은 예전의 히피 스타일(Hippy style)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히피족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으로 헝클어진 긴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는데 이것이 긴 머리가 여성만의 헤어스타일이 아니라는 성의 해체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예전의 남성들이 헝클어진 긴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다면 요즘 남성들은 세련되고 부드러운 여성의 긴 머리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다. 즉 남자는 남자답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성은 여성답게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해체하였다. 이것은 남자들도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여자 같은 율곡선을 가짐으로써 기성세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은 것이다.

1950년대 10대와 20대 초반의 소녀들 사이에서는 포니테일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하는 주요 헤어스타일이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이던 포니테일이 성의 해체로 인해 최근 들어 남성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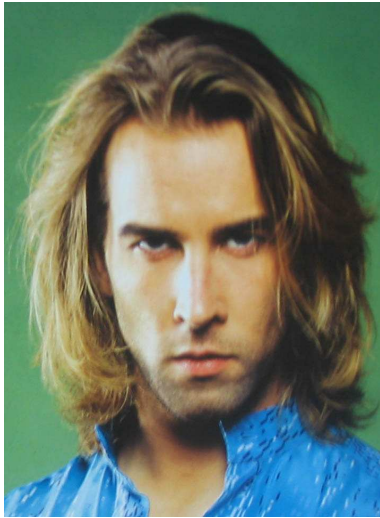
14) 포니테일(Ponytail): 뒤통 헤어를 후두부에서 마무리 지어 리본 등으로 동여 맨 스타일. 마치 그 한단의 머리가 꼬리같이 보이는 것으로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꼬리부분에 쉼이나 상투형으로 만들기도 한다.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포니테일이 유행하던 초창기에는 음악가나 디자이너 등과 같은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남성들이 보다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서서히 보통의 남성들 사이에서도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의 포니테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아이템을 수용하였지만 남·녀라는 성을 초월한 디자인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또 여성의 전유물로만 국한되었던 염색과 파마가 차츰 남성들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성적 매력 상징인 머리카락의 염색을 남성들이 수용하게 되면서 여성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변화 있고, 장식적이며, 화려한 색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 배워나갔다. 또, 남성도 여성들의 파마스타일을 하면서 기존 남녀 이분법의 고정관념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Ⅲ - 1, 2, 3>.

현대 시각에서 볼 때 헤어스타일의 장식성은 여성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만이 사용하였던 장식용 클립이나 핀 등을 사용하여 머리를 올려 묶던가, 아니면 여성들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하게 앞머리를 핀으로 장식하여 나타내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여성들은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차용하면서 많은 의식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차용하면서 의식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남녀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자연적인 성으로부터 문화적 성으로 시선을 돌려 성이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하였다.

<그림Ⅲ - 4, 5>은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얼굴엔 부분화장을 하여 남성의 여성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즉, 남성이라는 고정된 성 개념을 따르던 시대에서 형식이나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기호와 개성에 따라 연출하는 다양성 시대와 전환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림Ⅲ - 6>는 여성의 포니테일 스타일이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Ⅲ-1> 여성의 긴 머리를 차용한 헤어스타일
「Estetica, 2003. 10」



<그림Ⅲ-2> 여성의 웨이브를 차용한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3」



<그림Ⅲ-3> 여성의 웨이브를 차용한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2. 5」



<그림Ⅲ-4> 여성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차용한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4」



<그림Ⅲ-5> 여성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차용한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4」



<그림Ⅲ-6> 여성의 포니테일을 차용한 헤어스타일
「<http://imagesearchnaver.com>」

(3) 제 3의 성

‘여성의 남성화’ 사회적 조건과 ‘남성의 여성화’ 사회적 조건의 결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잠재된 반대의 성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외부로 표출되고, 자유롭게 융합되면서 헤어스타일에 표출된 것이 제 3의 성이다.

제 3의 성은 공유의 성으로서 남·녀의 성의 보편성을 추구함이 아닌 서로의 특징을 살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헤어스타일에서는 남자가 긴 머리를 했을 경우 수염을 기른다는지, 의상으로 남성스러움을 강조한다. 여성의 경우는 짧은 헤어컷에 화장을 하여 제 3의 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스타일들은 남·녀의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의식 해체현상을 나타낸다. 헤어스타일이 성을 구별해 주는 도구로 이용함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나는 성 정체성의 해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요즘 트렌드(Trend)로 부각되고 있는 ‘매트로 섹슈얼(Metro Sexual)’과 ‘우마드(Woomad)’라는 용어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

매트로 섹슈얼이란 자신감 넘치는 남성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여성 취향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남성을 뜻하는 용어이다. 도심에 살며 각종 클리닉과 피트니스센터 등 웰빙(Well-Being)을 실천하며 여성적 감수성을 지닌 남자, 그리고 패션과 트렌드를 읽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섬세하게 자신을 표현해가는 이들을 우리는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Trend Setter)이라고 칭한다. 트렌드 세터는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층이며, 이들은 화성과 금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한 단계 진화한 남자들이라 할 수 있다. 데이비드 베컴과 권상우, 김래원, 비 등 곱상한 외모와 남성미를 지닌 남성들을 매트로 섹슈얼이라 칭하고 있다. 매트로 섹슈얼의 대표인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섹시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카리스마가 넘친다면, 비나 권상우의 경우에는 ‘어린 남성’의 이미지로 여성에게 주도권을 넘기며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매트로 섹슈얼로 대표되는 도회적 남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 뿐 아니라 그들만의 라이프스타일이 확실히 존재하는데 여자보다 더 앞서가는 패션 감각과 웰빙을 추구해나가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오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서서히 남성들에 의

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기존 사회규범인 이분법적 표현방법이 무너지면서 서로의 성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가 제시된 것을 말한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우마드’라는 용어가 있다. 우마드는 몽골 유목민의 생활상을 비추어 여성은 남성과 함께 가는 삶의 동지로 인식한다. 유목사회에 당당하게 존중받고 살아갔던 몽골 여인처럼 우마드는 ‘신 모계사회 도시 유목민’으로 당당한 자아의식으로 무장해가는 여성을 말한다.

여성들의 수다를 ‘아름다운 수다’라 칭하며, 이 ‘아름다운 수다’는 여성들의 섬세한 감성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된다. 여성의 수다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강점으로 ‘수다의 전문성’이 있다. 남자들의 편견과는 다르게 여성들의 수다는 정보를 갖춘 네트워크라 말한다. 자식과외, 다이어트, 아파트 투자 등등 저널리스트 시대에서 수다에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시대, 콘텐츠가 좋아하는 시대라고 역설한다.

우마드의 두 번째 장점은 ‘홀로서기’와 ‘시(時)테크’이다. 남성들이 가지는 수동적인 조직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마드는 자신만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설거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따로 하고 매사를 시단위·분단위로 나누어 아이들, 남편, 자기 자신까지 챙겨가는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잡다한 일들을 시테크를 통해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을 칭송한다. 또한 부정적인 아줌마들의 시기심으로만 치부해버렸던 ‘질투’와 ‘시기’가 노블리스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야기한다. 경쟁을 통해 잘 될 수 있다는 것, 즉 여성의 윈윈(Win-Win)을 든다. 가족의 성공과 조직 내의 개인의 성공을 모두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잘 쓰는 일을 생각하고, 명품을 선호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이민을 꿈꾸지만 우리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런 여성상을 ‘우마드’라 칭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대는 변화된 성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성을 받아들여 가고 있다. 즉,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의 요소를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시켜 열린사회로 진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로 창조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대로 헤어스타일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Ⅳ- 1, 2, 3 >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이미지를 도용하여 남성인지 여

성인지 모호한 헤어스타일이다. 그 중 <그림 IV- 2>는 남성적인 헤어스타일에 메이크업하여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 4>은 여성의 긴 헤어스타일에 남성의 상징인 수염을 기른 것이다.

<그림 IV- 5>은 여성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온 액세서리를 하고 남성적 요소인 수염을 길러 최근 트렌드인 매트모 섹슈얼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V- 6>도 여성의 웨이브헤어스타일에 수염을 기른 매트모 섹슈얼 스타일이다.



<그림 IV-1> 성구분이 모호한 헤어스타일

「<http://www.pelurqueras.co.kr>」



<그림 IV-2> 성구분이 모호한 헤어스타일

「<http://www.pelurqueras.co.kr>」



<그림 IV-3> 성구분이 모호한 헤어스타일

「<http://www.pelurqueras.co.kr>」



<그림 IV-4> 여성의 긴머리에 수염을 기른 스타일

「미용회보, 2003. 4.」



<그림 IV-5> 여성스런 스타일
에 수염을 기른 스타일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IV-6> 여성의 웨이브머
리에 수염을 기른 스타일
「<http://imagesearch.naver.com>」

2) 민족주의가 해체되어 나타난 헤어스타일

테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서 중심으로의 탈피를 가진 탈 현상은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였다. 이것은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졌던 제 3세계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열린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탈현상은 국제화·다원화·개성화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민족주의의 해체를 가져왔다.

기능적, 기계 주의적, 획일적인 서양 중심의 생활관에서 탈 중심적 생활관으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비 서구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였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 생태학적 위기의 인식과 때 묻지 않은 자연의 회귀현상으로 인한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동양, 아프리카, 인디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조미영, 1999 : 37).

이처럼 새로운 시각은 민족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에서 세계가 다민족의 헤어스타일을 공유함으로써 세계적인 헤어스타일이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해체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1) 아프리카 풍

서구 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하여 제 3세계에 눈을 돌린 전 세계는 원시성의 상징인 부족문화를 가진 아프리카 땅을 영감의 땅, 상상력의 근원지로서 해석하고, 그 문화를 자기 문화에 흡수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뚜렷한 양상이 아프리카 풍 헤어스타일로 세계 각국에서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스타일로 아프로 스타일(Afro style)과 아프로 퍼프 스타일(Afro puff style), 레게 스타일(Reggae style)을 들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자유와 평등의 추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바람은 흑인민권에 대한 관심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결국 ‘흑백분리법’이 폐지되고, ‘흑인 인권법’과 ‘투표참정권법’이 제정되어 흑인의 정치적 평등이 어느 정도 달성되게 되었다(안현경, 1996 : 191).

5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흑인 민족주의는 흑인의 백인과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우선 자신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얻고자 머리 형태도 그전에는 백인처럼 보이게끔 그들의 곱슬머리를 아이론으로 펴고 다니던 것을, 그들의 전통적인 머리 형태인 꼬불꼬불하고 부시시한 흑인 특유의 머리를 별장식이나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빗질하여 부풀린 아프로 스타일을 유행시켰다(안현경, 1996:196).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아프로(Afro)’란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아프리카의(Africa)’ 또는 ‘아프리카인(African)’의 뜻이며, 미용용어로는 ‘아프로 아메리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말한다. 이 스타일은 흑인의 머리카락 구조인 바이라테랄 구조¹⁵⁾에 의해 머리카락이 항상 곱슬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빗으로 빗어 세우고, 크고 둥근 모양으로 다듬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이미용기술사전, 1991 : 307)<그림 V- 1, 2>. 이 스타일은 흑인들의 헤어스타일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동, 서양에서 모두 나타나는 해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V- 3, 4>.

1980년대 말 영화 “Out of Africa”를 기점으로 하여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새롭게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on Dior)의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John Galloiano)에 의한 패션쇼는 아프리카 스타일이 세계로 관심을 끄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존 갈리아노는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의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장식을 하였는데 이는 둥근 모양의 큰 퍼프에 장식을 하여 화려하게 나타내고 앞가르마를 한 모델 귀 양옆에 부착하여 표현하여 ‘아프로퍼프’라는 스타일을 만들었다<그림 V - 6>. 이 스타일<그림 V - 5>은 아프리카라는 민족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이지만 고정관념을 해체한 헤어스타일이 다민족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 흑인의 땡은 머리스타일로 흑인의 머리카락은 권상모(卷狀毛)로써 머리카락이 자라 나오면서 심하게 꼬여

15) 바이라테랄 구조(Bilateral Struture) : 양모의 아름답고 곱슬한 것은 양모 피질의 바이라테랄 구조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웨이브 외측에 올소 코텍스 (O-cortex의 결정영역) 파라 코텍스(P-cortex의 결정영역)가 한쪽으로 존재해 있고, 케라틴(Keratin)의 성상, 성분이 다른 상태이다. 예를 들면 황색인종은 P-cortex에 가깝고, 흑인종은 바이라테랄 구조, 백인종은 가장 중앙인 P-cortex 외측이 O-cortex의 동심원상의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

있는 상태의 나선형을 이루며, 모발은 대체로 역세고 뺏뺏하며 머리손질을 안할 경우 나무뿌리처럼 서로 엉키고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두피를 파고들기 때문에 여러 가닥 꼬거나 닿아서 늘어뜨릴 수밖에 없다. 또한, 더운 지역이므로 많은 땀의 배출을 피부 표면으로부터 쉽게 증발시키기 위해 가닥가닥 땀아서 머리의 부피를 최소화시켰다. 이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서 아프리카의 고유의 헤어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계기는 90년대 세계의 대중 매체인 TV나 잡지,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음악이나 스타일적인 대중문화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조미영, 1999 : 41-43).

레게 헤어스타일은 전체 머리를 얇게 section을 떠서 한 가닥씩 땀은 머리 스타일<그림 V- 6 >로 레게음악이 유행되면서 함께 유행한 스타일이다. 레게의 기원은 40년대 자마이카의 아프리카인들로 구성된 밴드의 연주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아프리카 민속 음악과 자마이카 인근 섬들의 댄스 리듬인 룬바, 칼립소 등이 혼합된 음악으로 ‘멘토’라고 한다. 60년대 초 멘토에서 한 단계 발전한 스카 형태로 나타났으며, 66년에는 스카 리듬을 사용한 ‘록스테이’라는 장르가 생겼고, 68년부터 본격적으로 레게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78년 메디슨 스퀘어가든 공연은 레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80년대에도 명맥만 유지하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새롭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음악의 유행은 레게스타일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흑인 위주의 XL-사이즈를 입고 다니는 험령한 패션이 유행하고(정경희, 1997 : 79-80), 헤어스타일에서는 레게음악을 하던 흑인 가수들의 헤어스타일로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 길게 땀고 다니던 민족 고유의 헤어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되었다.

서양인의 레게 헤어스타일은 머리카락에 붉은색이나 흰색 등의 실을 연결시켜 같이 땀았는데. 이런 헤어스타일은 강한 인상을 만들어 낸다.

<그림 V- 7>은 동양인이 레게 헤어스타일을 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림 V- 8, 9>은 트렌드에 나타난 레게 헤어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아프로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흑인들에게 시작되었지만 동양인과 서양인들에게 적용됨으로써 연출하는 핵심 아이템이다.



<그림 V-1> 아프로스타일
『Hairc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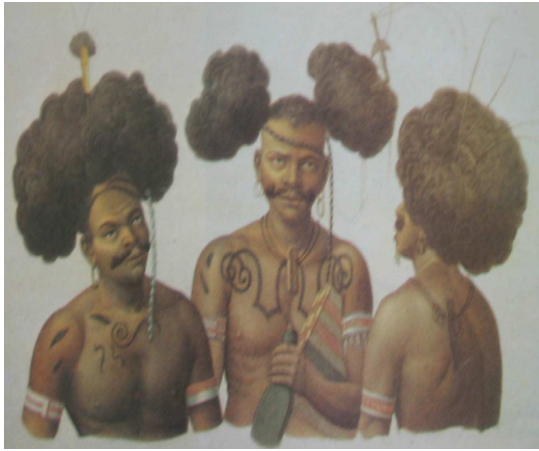
<그림 V-2> 아프로 스타일
『Haircults』



<그림 V-3> 아프로 스타일
『미용회보, 2003.3』



<그림 V-4> 아프로스타일
『<http://www.wella.co.kr>』



<그림 V-5> 아프로 퍼프 스타일
『인체미학』



<그림 V-6> 아프로 퍼프 스타일
『Mode et Mode』



<그림 V-7> 레게 스타일
『미용미학』



<그림 V-8> 레게 스타일
『메이크업&스타일 100년사』



<그림 V-9> 레게 스타일
「Estetica, 2003. 10」



<그림 V-10> 레게 스타일
「Estetica, 2004. 4」

(2) 동양풍

일반적으로 동양이라고 하면 터키의 동쪽에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통틀어 일컫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일본, 한국을 선정하여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민족의 해체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70년대 일본의 디자이너 하나에 모리, 다카다 겐조 등이 동양적 이미지의 화려한 색상과 꽃모양을 테마로 한 의상으로 파리 모드계에 진출함으로써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후 요지 야마토, 가와쿠보 레이, 이세이 미야케 등의 파리진출은 동양의 복식문화를 서양문화로 확산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아시아의 민족의상으로 동양적인 신비의 문양과 색채를 표현한 스타일이며, 인도, 중국, 일본, 몽골 등의 특정 민족의 양식과 스타일을 활용하는 스타일이다(신형선, 2003 : 233).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 강대국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싱가포르, 대만과 세계 문화개방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중국의 등장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동양풍 헤어스타일은 동방의 자연미를 추구하면서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다원화의 추구양상으로 엷은머리와 일본의 에도시대(江戸時代)의 수발양식인 환곡, 중국의 수발양식인 수계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머리를 위로 빗어 올려 세운 상태에서 끈을 이용하여 상투의 모양과 같이 장식하는 스타일이 상투 헤어스타일이다<그림 VI-1>. 동양의 상투머리는 농경문화를 나타내는 헤어스타일로 땅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며, 하늘을 숭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김용문, 1993 : 165)으로 상투라고 하는 계를 높이 세워 하늘에 보다 가까이 가려는 추계형이라는 헤어스타일이다. 상투는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헤어스타일이지만 산업화된 요즈음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투 스타일은 개성의 표현으로 연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부분가발과 달비 등을 이용하여 환곡을 나타낸다. 또한, 중국의 머리모양인 ‘쌍계’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동양풍 머리형태의 특징으로 업스타일 형태와 차분한 생머리, 직선적인 뺨을 한 앞머리 커트, 브레이드(땡은머리), 기모노 업스타일 형태, 그리고 블랙,

레드, 옐로우 골드, 비비드 톤의 컬러를 사용한다.

<그림 VI- 2, 3, 4>는 직선적인 뱅을 이용하여 나타낸 동양풍이미지이다. <그림 VI- 5, 6>은 중국풍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VI- 7>는 중국의 수계를 변형한 헤어스타일이다. 수계는 당나라 희종(僖宗)때, 궁인들이 머리를 매우 바싹 잡아매었는데, 이것이 후에 성종 때까지 영향을 미쳤고 일반 부녀자들이 모방하였다(김용문, 1993 : 72).

<그림 VI- 8>는 직선적이 앞머리와 차분한 생머리를 이용하여 동양풍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VI- 9>은 중국풍 이미지를 이용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VI- 10, 11>은 블랙, 레드, 옐로우 골드 색상을 이용하여 동양풍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VI- 12>일본의 사무라이를 연상하게 하는 의상과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남성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VI-1> 상투를 응용한
헤어스타일
「Book Moda No.65 Milano」



<그림 VI-2> 중국풍 헤어스타일
『미용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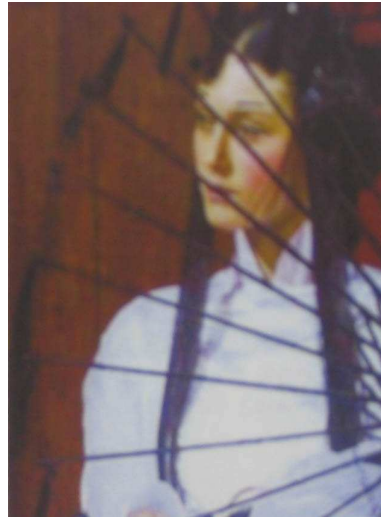
<그림 VI-3> 직선적인 커다란
뱅을 이용한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5」



<그림 VI-4> 직선적인 뱅을
이용한 헤어스타일
「Estetica, 200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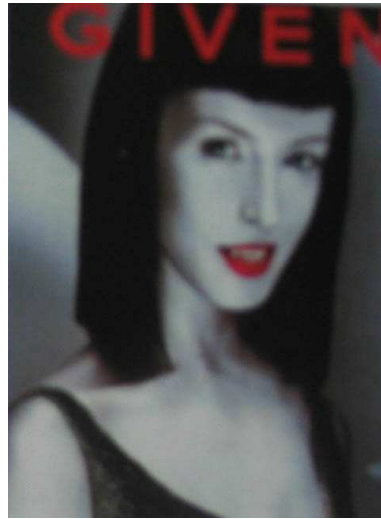
<그림 VI-5> 동양풍 헤어스타일
「 Estetica, 2002. 11」



<그림 VI-6> 중국풍 헤어 스타일
「ELLE KOREA NO.107」



<그림 VI-7> 수계를 변형한
헤어스타일
「 동아TV'03-04. F/W」



<그림 VI-8> 직선을 이용한
동양풍 헤어스타일
『 미용미학 』



<그림 VI-9> 중국풍 헤어스타일
「Estetica, 2003. 3」



<그림 VI-10> 중국풍 헤어스타일
「Estetica, 2003. 3」



<그림 VI-11> 오리엔탈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2」



<그림 VI-12> 오리엔탈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2」

(3) 인디언풍

1960년대 흑인의 민권운동은 아메리칸 인디언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 같은 인디언의 움직임은 반문화운동인 히피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기존의 미국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향수로 서구 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한 제 3세계에 눈을 돌려 인디언의 자연주의 경향을 수용하게 되었다.

의류와 액세서리 특히, 헤어스타일에 인디언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인디언들의 자연 생활방식과 부족내의 결속에 대한 동경, 백인들에게 거주지를 빼앗기고 보호구역에 묶어버린 소수민족이 미국 기존사회를 향한 저항정신이며(송주경, 1995 : 95) 인디언의 전통을 지켜주기 위한 시대적 요구로서 탈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기계적인 서구문명에 대한 반발로 잃어버린 과거와 자연에의 동경과 향수를 나타내기 위해 인디언 복식 그대로를 재현하지 않고도 그 특색의 일부 즉, 어떤 부분적인 것만을 살려서 인디언풍의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 감각에 맞는 인디언풍의 헤어스타일이 전파되고 있다(조미영, 1999 : 46).

레게 스타일의 곱슬거리는 머리를 길게 땀은 머리<그림 VII-1, 2>, 인디언의 깃털장식<그림 VII- 4>, 이마에 두른 끈 등이 인디언 헤어스타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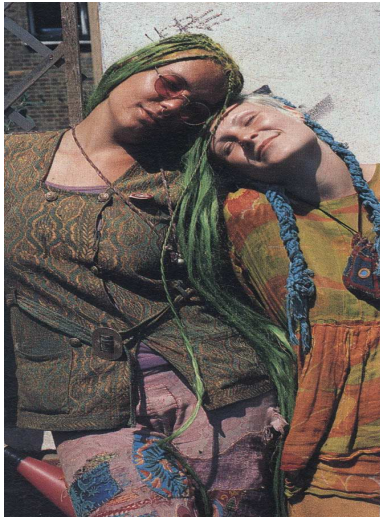
<그림 VII- 3>는 브라질의 크상구 국립공원의 인디언이 머리를 푸딩 그릇 모양으로 자르고, 우르크씨로 만든 붉은 안료를 칠하고, 팽팽하게 당겨진 줄로 문지른 그림인데 이 푸딩 스타일도 인디언풍의 영향으로 헤어스타일에 반영이 되어 나타났다 <그림 VII- 4>.

<그림 VII- 5>은 인디언의 깃털장식이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것인데, 깃털은 인디언 복식에 매우 중요한 장식적인 부분으로 인디언 투사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머리장식은 보통은 닭이나 꿩의 깃으로 만들어 졌으나 우두머리는 닭이나 꿩 대신 독수리를 비롯한 맹수의 깃을 사용한다. 독수리는 그 아름다움과 힘에 있어서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깃털은 단지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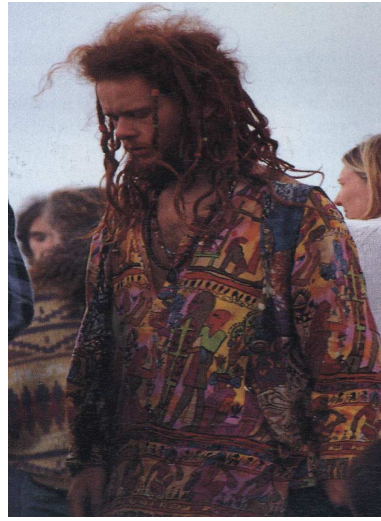
용감한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만 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새의 깃털을 이용해 장식을 한다는 것은 사냥문화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현이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머리장식으로 깃털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깃털 장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인위적인 장식을 추구하는 서구미의 해체현상의 예라고 볼 수 있다<그림 VII- 6>.

<그림 VII- 7>은 양 갈래로 긴 머리를 땀은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VII- 8>은 인디언풍의 땀은 머리이다. <그림 VII- 9>의 땀은 머리는 중간 중간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 눈에 잘 띠는 두 가지 이상의 색실을 연결시켜 꼬아 끝부분에 색끈을 달아 장식하였다. <그림 VII- 10>는 헤어스타일을 느슨하게 머리를 땀거나 일부러 헝클어뜨린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꼬아 편안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VII- 11>은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풀고 이마에 끈을 두른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VII- 12>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틀어 올려 보석이 박힌 머리끈을 전체적으로 두른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VII-1> 인디언 헤어스타일
『Haircult』



<그림 VII-2> 인디언 헤어스타일
『Haircult』



<그림 VII-3> 인디언 푸딩스타일
『인체장식』



<그림 VII-4> 인디언 푸딩스타일
『Fashion Insight, 98.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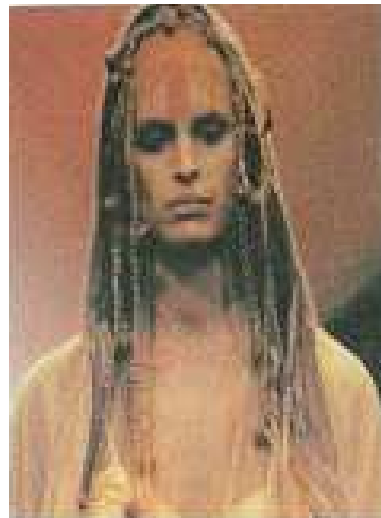
<그림 VII-5> 깃털장식을 이용한 헤어스타일
『인체장식』



<그림 VII-6> 깃털장식을 이용한 헤어스타일
「 Estetica, 2001. 1」



<그림 VII-7> 인디언의 땃은 머리를 이용한 헤어스타일
「 Estetica, 2004. 4」



<그림 VII-8> 인디언의 땃은 머리를 이용한 헤어스타일
「 Fashion Insight, 02. S/S」



<그림 VII-9> 인디언의 땃은 머리와 색실 이용한 헤어스타일
「 Estetica, 2004. 3」



<그림 VII-10> 인디언의 형클어진 헤어스타일
「 Estetica, 2004. 4」



<그림 VII-11> 이마에 끈을 두른 헤어스타일
「 Estetica, 2003. 9」



<그림 VII-12> 머리전체에 끈을 두른 헤어스타일
「 Estetica, 2004. 4」

3) 기존 방식이 해체되어 나타난 헤어스타일

해체주의에 나타난 의미란 주관에서 가져온 허구적 구조물이며, 불확정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체주의에서 기호의 재현성이 상실되면서 로고스 중심주의 이분법이 해체되어 열린 사고로 인해 불확정적으로 연출됨으로서 주관적인 미가 강조되어 표현된 것이 기존 방식의 해체이다.

기존 방식이 해체되어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펑크스타일(Punk style)과 키치 스타일(Kitsch style)을 들 수가 있다. 펑크와 키치는 다른 말로 하위문화라고도 한다.

1960년대의 미국이나 전후 복구를 마친 유럽 등에서는 주류문화가 여전히 기득권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항적인 하위문화가 나타나면서 대중사회의 틀을 잡아나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위계적인 권위, 전통 등에 억눌려 있던 개인적 성향은 스스로에 의해서 변형되어 개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개성은 불완전하게나마 성취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나 개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바로 새로운 세대인 젊은 층이다. 기존 지배층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에 대항하여 대중사회 속에서 다양한 수용자 집단이 각자의 조건에 따라 보여주는 문화적 실천의 차별성을 반영한 문화를 하위문화라 하는데 이 하위문화는 주로 청소년 문화를 대표한다. 이들이 연형이나 세대차, 통제에서 파생된 문제들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 구조에서 느끼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 자신이 뚜렷이 구별되고, 특별한 상징적인 하위 문화적 반응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화는 지배문화에 대해 상징적인 수단을 통해 저항하는 문화가 되었다(강현두, 1994 : 105-109).

(1) 펑크 스타일(Punk style)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젊은 세대의 전통에 구애 받지 않는 창조성과 자기만의 강력한 메시지를 나타내려는 사상과 정신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의 의미를 지닌 것을 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 펑크와 같은 스트리트 패션이 창출되게 되었다(강주아, 2003 : 73).

펑크는 구체적으로 1976년 영국의 변화가인 King's Road를 중심으로 생활 하던 실업자, 혹은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발생한 그룹으로, 좌절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문화적 반항집단으로 지칭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파괴적 행위로 무한한 가능성의 모더니즘을 창출하여 원시 문화인 아프리카를 동경하였으며, 보헤미안적 성격을 가지고 스스로 반성취 주의(Anti Achievement Starement)들로서 미술대학생들에게 열광적으로 퍼져갔다. 사회계층구조와 인종차별에 대한 무언의 항거, 무질서, 무정부주의로 도피하려는 속성을 가졌으며 펑크의 상징은 나치, 검은색이었다(김경옥, 1998 : 56-57). 찬사와 혐오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받았던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를 중심으로 한 런던 펑크의 출몰은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과 미술, 청소년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사건이었다.

펑크는 처음에는 음악에서 출발하여 허무주의와 폭력을 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불쾌감을 주는 의상, 무대 위에서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통하여 기존 사회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였다. 펑크 패션에서 특징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사상과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펑크 헤어스타일을 들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날카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나 충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펑크 헤어스타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형태적 측면, ② 색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수탉의 벼슬처럼 곳곳이 세운 모히칸 스타일, 뾰뾰하게 새운 스파이키 스타일(Spiky style), 머리를 뾰뾰 깎은 스킨헤드(Skin head)등이 있다. 색상측면에서도 개성표현, 반항심, 강렬함을 나타내기 위해 분홍색, 오렌지색, 초록색의 형광 물감으로 물을 들였다(전선정 외3, 2001 : 20).

① 형태 측면

펑크 헤어스타일은 형태적으로 스파이키 스타일, 모히칸 스타일, 스킨헤드

헤어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다.

스파이키는 ‘긴 못, 담장 못, 길고 뽀족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스파이키 헤어는 머리를 비비꼬아 머리 위에 뽀족한 송곳들이 여러 개 꽂혀져 있는 모양을 말한다. 이 머리는 무질서하고 폭발하는 듯 한 모양을 하고 있다<그림 VIII- 1>. 스파이키 스타일의 긴 머리는 하나하나를 딱딱하게 뭉치거나 편편하게 펴서 쪽 뺨게 만들었다<그림 VIII- 2>. 쪽 뺨은 스파이키 끝은 찢릴 것 같이 뽀족해서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고 그 속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고뇌와 불만이 나타나 있다. 스파이키의 한 가닥들은 모두 같은 색으로 염색된 것도 있지만 각기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해서 독특함을 더하기도 한다(공차숙, 2002 : 54-55).

<그림 VIII- 3>는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여 무질서한 스파이키 스타일이다. <그림 VIII- 4>는 머리를 가다가다 뭉쳐서 쪽 뺨게 해 무질서하고 헝클어진 스파이키의 변형된 스타일이다. 이들 스타일들은 기존의 머리카락은 차분하게 아래로 떨어진 형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과 낯설음을 느끼게 하는 스타일이다.

모히칸 스타일은 수탉의 벼슬 모양처럼 머리 양쪽 측면을 극도로 짧게 자르거나 면도를 하고 앞이마부터 뒷 목덜미까지 넓은 부채모양으로 잘라 뺏뺏이 고정시킨 것이다. 이 스타일은 앞에서 보면 길게 세운 나무 양가에 고속도로가 난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양으로 중간의 머리카락을 강조하게 위해 중간을 밝은 색으로 염색하기도 하고 끝 부분만 일렬로 염색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미의식에 충격과 불쾌감을 주는 공격성에서 새로운 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VIII- 5, 6, 7, 8>.

<그림 VIII- 9>은 양옆을 붙여서 중간머리를 세워서 머리카락 끝부분엔 흰색으로 염색하여 하늘로 뻗치게 연출한 스타일이다. <그림 VIII- 10>은 좀 더 부드러워진 모히칸 스타일로 양옆을 짧게 자르지 않고 길이를 유지하면서 염색을 이용하여 모히칸 스타일을 연출한 것이다.

스킨헤드 스타일은 머리를 뽀뽀 깎은 스타일로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체주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로 해석되어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한 펑크스타일의 예라 할 수 있다<그림 VIII- 11>.

<그림 VIII- 12> 는 트렌드에 나타난 스킨헤드 스타일이다. <그림 VIII- 13> 는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다양한 그림을 그려 넣은 스타일들로 스킨헤드가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60년대 말 격렬한 모즈(Mods)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했는데 그 모습은 말아올린 진 바지, 작업용 부츠, 멜빵을 하고 머리를 아주 짧게 깎은 (Crop hair)모습이었다. 이들은 ‘보버소년(Bovver boys)’, ‘부츠소년(Boots boys)’으로 불리었으며, 히피같이 노동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근로계층에 기원을 두고 청교도적 근로 윤리를 갖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거부당한 남성다움을 추구하였다. 학교로부터 거부당한 자아개념을 회복하기 위해 강한 노동계층의 보수성을 발전시켰고, 히피의 노동을 경멸하는 약한 이민자들과 타락하여 사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동성애자들의 행동에 대해 그들의 세계를 보호하였다. 그들의 격렬한 특성을 보여주는 형태는 축구 경기에 임하기 전에 바지멜빵, 벨트, 부츠끈 등을 경찰에 의해 제거당하는 것이었다(Mike, 1980 : 78). 투박한 부츠와 덩키 재킷은 그들이 육체노동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표시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축구 경기장에 모였을 때 그들의 복장은 쇠로 앞부리를 덮은 부츠, 짧고 바랜 진바지에 버튼다운 셔츠나 칼라 없는 노동조합셔츠를 입었다(Ted, 1995 : 31). 아이러니하게 70년대가 되면서 그들의 모습은 좀 더 단정해져서 사람들을 혼동시켰다. 트림한 수트와 스마트한 로퍼를 착용한 이들은 머리도 조금 자라게 두어 스웨이드스킨’이라 불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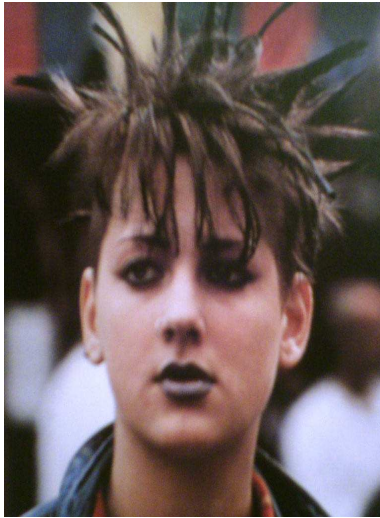
② 색상의 측면

모든 문화를 통틀어 핑크는 가장 머리의 색이 다양하고 현란한 색조를 사용하였다. 핑크족들은 보편화된 대량 생산으로 인해 그들이 비개성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들 자신의 개성 표현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상징인 헤어스타일을 원하였고 그것을 모발의 색으로 표현하였다. 머리에 분홍색, 오렌지색, 초록색의 형광물감으로 물들이거나 또는 머리 뿌리 부분을 검게 남겨두고 머리카락 끝만 밝은 금발로 탈색하였다(이주행, 1995 : 44).

이들은 가장 순수한 생명력의 상징, 커다란 가능성의 상징으로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려고 하였다(Hector Obalk, 1984 : 219). 때로는 핑크들의 이러한

머리색이 기존세대들에게 충격을 주어 부정적으로 비춰지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림 VIII- 14>는 머리뿌리부분은 검은색으로 남겨두고 길게 나온 머리카락 끝부분을 녹색으로 염색하였다. <그림 VIII- 15>는 머리전체를 밝게 염색하고 분홍색등 형광색으로 연출한 스타일이다. <그림 VIII- 16>은 분홍색, 파란색으로 펑크족의 이미지를 연출한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들은 색채지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색을 이용한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충격요법은 기존의 미의식을 해체함으로써 눈에 잘 띄어 그 모습이 더욱 반항적, 개성적으로 보인다.



<그림 VIII-1> 스파이키 스타일
『메이크업&스타일100년사』



<그림 VIII-2> 스파이키 스타일
『미용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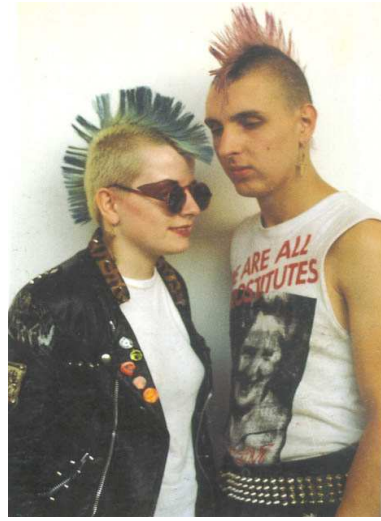
<그림 VIII-3> 스파이키 스타일
『미용회보, 2003. 3』



<그림 VIII-4> 변형된 스파이키
스타일
『미용회보, 2003. 5』



<그림 VIII-5> 모히칸 스타일
『미용미학』



<그림 VIII-6> 모히칸 스타일
『Street style』



<그림 VIII-7> 모히칸 스타일
「<http://imageserchnaver.com>.」



<그림 VIII-8> 모히칸 스타일
『미용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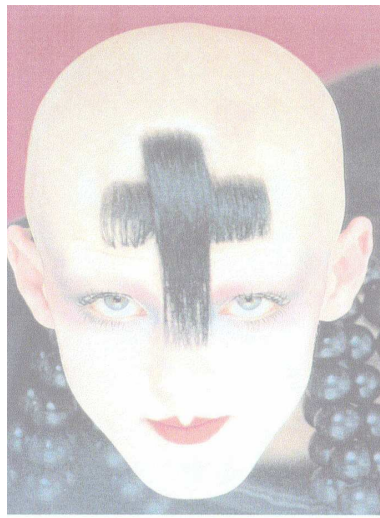
<그림 VIII-9> 모히칸 스타일
「JohnGalliano'00. S/S
프레카포르테」



<그림 VIII-10> 변형된 모히칸
스타일
「미용회보, 2003. 10」



<그림 VIII-11> 스킨헤드 스타일
「Faces in make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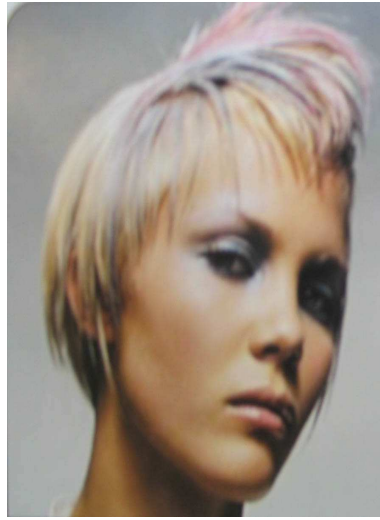
<그림 VIII-12> 스킨헤드 스타일
「Book Moda No.65 Milano」



<그림 VIII-13> 변형된 스킨헤드 스타일
「<http://midea.news.daum.net>」



<그림 VIII-14> 초록색의 핑크
스타일
「미용회보, 2003. 5」



<그림 VIII-15>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낸 핑크 스타일
「Estetica, 2004. 3」



<그림 VIII-16>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낸 핑크 스타일
「Estetica, 2004. 2」

(2) 키치 헤어스타일

키치는 통속적인 사회현상으로 진품적 가치나 효과를 모방하는 태도와 그러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존재 방식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사회적 기능이 사물 자체에 부과된 것이다. 그러므로 키치는 예술에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공물과 관계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키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중층적 구조를 가지며 왜곡된 현실묘사로 존재한다(오창섭, 1997 : 40).

산업혁명이후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대량생산체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비의 증가가 늘어났으며 이런 발전은 가치기준과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종래의 미적 규범을 해체한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소비자가 즐기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방·복제하고, 재생산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생애 내내 욕구와 현실사이에 나타나는 거리감 속에서 또는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나타나는 긴장감, 소외감, 불안감, 무력감, 불확실성 속에서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정서의 혼란을 은폐하고, 대리적 정서체험을 통해 욕구와 현실을 벗어나 자기 세계 속에 빠져드는 도피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은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대중적인 삶에서 오는 무력감과 긴장감, 소외감을 치유하기 위해 환상을 제공하는 키치가 번성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김정자, 1997 : 8). 키치를 통해 억압하고 코너로 몰아가는 현실로부터 심리적 이탈을 꿈꾸며, 사회적 소외를 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초현실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될 수 있다.

초현실주의의 주요 표현방법인 전위가 키치에도 표현되어 어떤 사물이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냄으로서 사물은 일상적 용도에서 벗어나 그 현실성이 소멸됨과 동시에 사물의 일상적인 의미가 희석되어 무의식적 차원을 형성하면서 사물의 본연에 숨겨진 특성이 나타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무한한 의미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쳐 단순히 남과 다른 차

림이라는 개성표현에서 벗어나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인 단정하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조미영, 1998 : 63)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 스타일의 특징은 과잉장식, 기하학적인 무늬, 현실도피처로 나타난 만화 주인공, 일상생활용품 등 다양한 오브제를 헤어스타일에 이용한 것이다.

<그림 IX- 1, 2, 3>은 꽃을 이용하여 마치 꽃으로 된 머리띠나 모자를 쓴 것처럼 장식을 해서 이제 막 꽃밭에서 튀어나온 듯 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IX- 4>둥근 고리들이 연결된 모양으로 헤어로 엮어낸 디테일로 장식물이 왕관과 스카프처럼 머리와 어깨에 둘러져 있다.

<그림 IX- 5, 6>는 매듭으로 이루어진 깔끔하고 불규칙한 매듭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스타일이다.<그림 IX- 7>는 나선모양의 모발과 모조 다이아몬드로 헤어를 장식한 스타일이다.<그림 IX- 8>은 업스타일(Up stlye)된 스타일에 헤어피스를 연결하여 헤어에 마치 막대기를 꽂은 느낌을 준다.



<그림 IX-1> 꽃을 이용한 키
치 스타일

「Estetica, 2003. 5」



<그림 IX-2> 꽃을 이용한 키
치 스타일

「Estetica, 2003. 5」



<그림 IX-3> 꽃을 이용한 키
치 스타일

「Estetica, 2002. 10」



<그림 IX-4> 머리카락으로 장
식한 키치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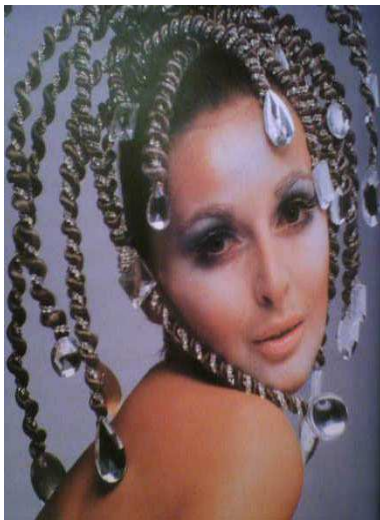
「Estetica, 2002. 3.」



<그림 IX-5> 머리카락으로
장식한 키치 스타일
「미용회보, 2003. 4.」



<그림 IX-6> 머리카락으로
장식한 키치 스타일
「미용회보, 2003. 4.」



<그림 IX-7> 나사모양의 모발
과 모조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키치스타일
『메이크업&스타일100년사』



<그림 IX-8> 헤어피스를 이용
한 키치 스타일
「Estetica, 2004. 3」

2.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탈 구성적 해체경향

헤어스타일은 인체의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며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개선되거나 새롭게 연출되기도 할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또한 인체에 있어서 디자인의 조형요소에 의해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시대의 생활과 문화적 양식, 예술적 양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해당되는 미적 본능은 결국,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시각적인 부분과 기능적 측면을 통합한 디자인이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헤어스타일에 좋은 디자인이 없이는 미와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데 디자인이란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시각화시키는 작업으로 단지 미를 추구하는 예술과는 다르게 기능을 먼저 생각하면서 보기에 아름답고 생활의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헤어 디자인의 목적 또한 스스로의 좋은 이미지, 혹은 새로운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어의론(語義論)적 의미인 “기본적 의미, 또는 이미지를 계획 혹은 설계하는 것”(민경우, 1995 : 22)에 입각한 헤어 디자인의 조형원리를 먼저 설명하여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헤어 조형의 개념 및 특성

조형이란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하여 어느 관념에서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며 어떤 물질을 빌려 이것에 필요한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이다(한석우, 1994 : 12). 창조적 표현 활동을 형성하는 조형예술은 새로운 시각형식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이다.

헤어는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의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한다. 헤어조형이란 헤어 자체를 순수하게 분석하고 미적 측면을

탐구하여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적 형태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헤어는 두상의 3차원적인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기법에 의해 선의 조합이 면을 형성하고 이러한 형이 입체적 헤어를 구성하고 있다. 또, 헤어는 구조적 특성상 조형의 요소로 형태, 색채, 질감을 들 수 있다. 큰 의미로 형태(Style)는 헤어컷트, 색채는 헤어 염색, 질감은 헤어 폼에 비유 할 수 있지만 작은 의미로 헤어 컷트에서의 형태란 전체 머리형을 이루는 스타일 즉 헤어 폼(Form)으로 풀이 될 수 있으며, 색채란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으로 변형된 머리색을 의미한다. 그리고 질감이란 모발의 강·약 상태나 직모 또는 곱슬 등과 같이 자연모발에 의하여 나타나는 텍스처(Texture)와 퍼머에 의하여 나타나는 웨이브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하경연, 2002 : 13).

헤어의 조형의 각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태

형태에는 구상적 형태와 추상적 형태가 있다. 첫째, 구상적 형태는 구체적인 형태의 의미를 내포하며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물, 꽃, 동·식물, 조개껍질, 나무모양 등의 객관적인 실물에 적용한 형태를 말한다. 이를 헤어디자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순수한 헤어 커팅으로 본질적 형태 그대로의 모질, 모류, 두상의 조건, 모양의 특성을 살리는 스타일을 들 수 있다.

둘째, 형태는 기하학적인 것과 비기하학적인 것으로 나눌 수도 있고, 고유한 형태, 변형된 형태, 창조적인 형태로 나눌 수도 있다. 이들을 헤어스타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하학적인 헤어스타일은 커트의 기본형태 라인을 강조한 커넥션 스타일이며, 비기하학적인 것은 커트스타일의 기본형태를 무시하고 모발 끝처리를 아주 가볍게 한 디스커넥션 스타일을 의미한다.

헤어스타일과 관련한 비기하학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고유한 형태는 데생의 정밀묘사를 의미할 수 있는데 헤어스타일에서는 커트디자인과 비교할 수 있다. 변형된 형태는 정물화, 유화 등을 의미하고 물체에 작가의 의도에 의해 색채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디자인 요소에 의한 커트와 염색의 조화

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인 형태는 비구상이나 추상화와 비유할 수 있고 커트라인의 형태를 무시한 개념의 디스커넥션과 비유할 수 있다(하경연, 2002 : 14).

① 점(Point)

헤어디자인에서의 점은 그 스타일의 포인트를 뜻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의 크기와 길이의 끝부분을 점으로 가정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시각적 효과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평선상의 두 개의 점은 안정감을 주게 되고 대각선상의 두 개의 점은 동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어 율동감을 부여한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점은 큰 점이 헤어스타일의 포인트 역할을 하며 큰 점과 작은 점의 강약이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 전체적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하경연, 2002 : 14).

② 선(Line)

선은 점과 점이 이어졌을 때 형성된다. 헤어디자인에서는 점의 이동방향이 일정한 것을 직선, 그와 반대로 선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곡선이라 할 수 있다(지상기, 1999 : 263).

헤어디자인에서는 원형의 곡선과 C자 모양의 선, A곡선, U곡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X - 1> 라인을 표현한 헤어스타일
『Sculpture Ladies』

③ 면(Shape)

면은 선과 선이 이어진 것으로 정해진 위치에 있어서 길이 및 폭의 방향으로 퍼진 2차원의 연속체이다.

면은 직선 면과 곡선 면 또는 그 혼합된 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면의 성격도 역시 구성하는 선의 감각에 영향 받는다. 직선 면은 곡선 면보다 일반적으로 강하고 냉담한 성격을 가지고 곡선 면은 부드럽고 순한 따뜻한 면이 있어 그 혼합 면은 양자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



<그림 X-2 > 2차원의 기하학적 헤어스타일

④ 형(Form)

형은 면과 면이 이어진 것으로 물체에 있어 그것이 에워싸고 있는 면이나 공간의 실루엣을 말한다.



<그림 X-3 > 3차원의 기하학적인 모양
『Sculpture Ladies』

(2) 색(Color)

조형에 있어서 색은 매우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술가들은 과학적 바탕 위에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색채를 다룬다. 색은 우리에게 미적 정서를 야기시키며 그 진정한 의미는 조형이나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전후 맥락이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김춘일외1, 1994 : 54-57).

헤어조형에서 색은 질감처리 테크닉을 이용하여 색의 명도단계와 같이 모발의 량으로 색감을 조절하며, 전체적으로는 어둡게 혹은 밝게 함으로써 그 연출효과를 조절시키기도 한다. 또, 유사색 대비, 보색 대비, 면적 대비 등의 배색을 이용함으로써 선의 흐름과 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사용하여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림 X- 4> 색상을 표현한 헤어스타일
『Sculpture Ladies』

(3) 질감(Texture)

질감이란 형태, 색채와 함께 디자인의 필수요소로서 재료나 기법에 의하여 나타나는 물체 표면의 특징으로서 촉각으로부터 시각적 촉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느낌을 말한다.(권상구, 2002 : 105)

헤어조형에서의 질감도 디자인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느낌, 손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의미한다.

모발의 질감은 모발이 갖는 기본적 성질과 물리적으로 변화된 성질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기본적 성질 - 반곱슬의 모발, 강모, 연모, 가는 모발 등이다.

2. 물리적 성질 - 인위적으로 웨이브의 형태를 연출시킨 상태의 모발이나 염색, 퍼머, 과도한 빗질로 인해 모발이 손상된 상태의 모발에 의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다. 커트디자인에서는 스타일에 따른 무게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모발의 전체적 표면은 촉각, 시각적 효과에 의해 거칠게 또는 부드럽게 보일 수 있으므로 질감 처리 테크닉을 이용하여 얼굴의 형태선을 부드럽거나 강하게 연출할 수 있다(하경연, 2002 : 22).



<그림 X- 5> 질감을 표현한 헤어스타일

2) 기존의 구성적 헤어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

헤어조형에 있어 기존의 구성적인 헤어스타일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기하학

적인 형태의 스타일을 말한다. 기하학이란 수학적 법칙에 의한 질서를 갖고 있으면서 단순 명료한 감각을 준다. 양식적이고 암시적인 기하학적 기호나 도형의 상징적 중요성은 자연형태에 대한 도식적 표현이며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근원적이고 영원성을 지닌다(한석우, 1994 : 12).

현대 예술에 있어서 기하학적 양식은 과학적인 시각을 동반한 것으로 연쇄적 조형감각을 바탕으로 작가가 창조하고자 하는 조형적 사고를 주제에 대응시켜 점, 선, 면 등의 도식적 조형요소에 의해 화면상에 비례와 균형을 유지시킨 순수형태의 구성양식을 말한다.(한석우, 1987 : 52). 이것의 표현양식으로서 기하학적 표현의 적용은 수학적 질서에 의해 시간의 계속성이 보여주는 가변성과 변화작용에 저항감을 가지고 공허 공간에 안정성과 구획성에 적용하기 위하여 도식과 동일한 요소의 반복, 윤곽의 단순화와 조직화가 지배적이다.

기하학적 형태는 헤어디자인에 있어서 전체적인 형태 안에 부분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진체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현되는 실루엣은 단순한 라인의 형태로 표현될 때도 있으며, 입체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부분이나 전체의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강한 조형감각을 부여한다(김가연, 2003 : 82).

헤어스타일에서 구성적 형태는 점, 선, 면의 디자인요소를 접목하여 커트의 기본형태라인을 강조한 커넥션 스타일을 말한다. 이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서로 분리되거나 배척당하지 않고 통일된 느낌을 주며 모발의 길이, 모발의 양, 두상의 외향곡선의 형태를 대칭적으로 디자인한 스타일로 정적, 엄격함, 고전적, 그리고 단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스타일이다. 선의 방향에 의한 색상, 명도, 채도 등에 의해 통일되고 수평이나 수직 축에 의한 좌우 대칭을 이루며 안정감을 주는 스타일이다.

색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색상이나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되거나 규칙적인 컬러배열을 하여 안정된 시각효과를 주는 스타일이며 질감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모발표면이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림 X- 6> 기존의 구성적인 헤어스타일
『비달사순 50년사』

구성적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크게 솔리드, 그레쥬에이션, 유니폼 레이어, 인크리스 레이어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솔리드(Solid)는 컷트 되어진 형태가 종모양으로 모든 섹션들이 똑같은 면에서 모발이 자연적인 성장패턴으로 떨어지도록 허용한 상태에서 컷트되어지는 것이다. 아우트라인이 한 선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컷트 스타일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랭스(One-Length)와 같은 개념이다.



<그림 X-7> 솔리드
『Sculpture Ladies』

둘째, 그레듀에이션(Graduation)은 컷트되어진 형태가 삼각형으로 두상의 위로 가면 갈수록 섹션의 길이가 점증적으로 길어지는 스타일로 머리끝 부분이 서로 쌓이는 듯 무게감을 형성한다. 그레듀에이션은 두상의 형태로부터 모발이 멀어지도록 들어올림으로써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내부적 형태나 외부적 형태 모두 형성되어질 수 있다. 들어올림의 양은 길이, 텍스처 형태에 달려있다. 또 무게선을 중심으로 질감의 대조를 보인다.



<그림 X-8>그레듀에이션
『Sculpture Ladies』



<그림 X-9>인크리스 레이어
『Sculpture Ladies』

셋째, 인크리스 레이어(Increase-Layer)는 컷트되어진 형태가 긴 타원형으로 머리가 탑(Top)부분에서 네이프(Nape)로 길이의 증가가 일어나는 스타일이다. 탑부분의 길이가 길수록 혼합형의 질감을 가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유니폼 레이어(Uniform-Layer)는 컷트되어진 형태가 원형으로 머리길이 전체 동일하며 무게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X-10>유니폼레이어
『Sculpture Ladies』

3) 탈 구성적 해체주의의 헤어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

탈구성(Discomposition)은 철학적 해체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이것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기존 구성방식의 파괴로 기하학적 형태의 역설적 구성을 취하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을 나타낸다. 해체주의 디자인에 있어 기하학적 형태의 역설적 구성은 기하학과 시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의미의 폭이 확대되었고,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 등의 구성을 통해 특정한 위계질서를 갖지 않는 위계의 불확정성을 갖고 있다(양세은, 1992 : 52).

탈구성이란 용어는 텍스트를 개념으로 분해·분석하고 어떤 구조적 범주 안에 위치시키는 것으로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관계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즉, 전통적 디자인 과정의 역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김주영, 1995 : 96). 따라서 탈구성의 개념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헤어디자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헤어디자인의 예술분야는 규칙성이 가미된 미적 가능성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응용예술의 한 부분이다. 전통적 헤어스타일이 가지고 있던 일정한 형태

의 조형성을 가진 헤어스타일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그 형태가 무너지고 심지어 무시되고, 형태 자체도 헤어스타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 아름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에서 탈구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태를 갖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지닌 헤어스타일에서 벗어나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불균형·비대칭적인 스타일, 강한 보색 대비나 전혀 다른 질감의 표현과 질감표현이 고르지 않은 비기하학적 스타일을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이라 한다.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은 기존 구성적인 스타일처럼 한 가지 라인의 컷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형태와 형태의 결합 즉, 스타일과 스타일의 결합을 의미한다. 솔리드와 그라듀에이션의 결합, 솔리드와 인크리스 레이어의 결합 등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또, 최근 비대칭적인 스타일이 대두되면서 어시메트릭 컷과 머리의 섹션들끼리 연결이 되지 않는 디스커넥션 컷, 각각의 존(zone)들이 연결되지 않는 존 컷 등으로 나타났다. 이 스타일들은 비달사순의 2000년 트렌드를 전·후로 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탈구성적 스타일인 디스커넥션 컷과 존 컷은 브런트 컷(Blunt cut)이 주는 딱딱함을 보완해 주고 머리카락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주어 개인의 개성이 잘 표현된다. 디스커넥션 컷은 개성이 강한 사람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앞머리에 많이 응용하고 있다. 디스커넥션 스타일은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신세대들의 비조형적 자유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은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은 세대들로 누구의 간섭이도 받기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가치관과 행동을 자유롭게 흘날리는 헤어스타일로 표현한다.

4)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탈구성적 해체사례

(1) 형태적 측면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의 형태적인 측면은 기존의 일정한 형태를 갖는 기하학적 스타일에서 벗어나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불균형·비대칭적인 스타일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구성적인 스타일이 갖는 한 가지 라인의 컷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XI - 1>은 사이드의 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스타일로 단차와 방향의 변화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돌출하고 있다.

<그림 XI - 2>은 검은색 모발에 다시 붉은색 모발로 염색하여 가위로 잘라서 덮어씌운 듯 한 디스커넥션 스타일로 붉은색의 강렬함을 이용하여 컷트선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 XI - 3, 4>은 날렵한 언밸런스의 A라인으로 앞머리는 무겁게 떨어지는 고른 질감과 머리 끝선의 가벼운 질감이 동시에 나타나며 한가지의 컷트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의 컷트 형태의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XI - 5>은 왼쪽 사이드부분은 클리퍼를 이용하여 짧게 잘라서 머리의 길이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디스커넥션 스타일이다.

<그림 XI - 6 >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비대칭 밸런스 컷으로 무거워질수록 가벼운 질감처리를 시행하였고 수평방향으로 좌우대칭의 느낌을 관통하는 프렌지(fringe)로 중심을 잡아주는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XI - 7>의 옆쪽으로 늘어진 긴 타래머리는 전체적인 컷트의 돌출부로서 어쉬매트릭과 오버랩핑(Over-wrapping) 효과를 동시에 준다. 그리고 이 부분의 오버랩핑된 컬러는 베이스컬러에 악센트를 주고 전체적인 룩(Look)에 재미를 주는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XI - 8 >는 앞머리를 겹겹이 드리워진 커튼처럼 표현하였다. 무겁게 머리카락을 층층이 자른 앞머리와 블랙과 화이트로 극과극의 색을 사용하여 경계를 더욱 또렷이 표현하였다. 기존의 헤어스타일은 그라데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컬러 또한 비슷한 색을 사용하여 조화를 중시하였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해체시킨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XI - 9>은 길이의 단차가 표현되어 한 가지 라인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XI - 10>은 비대칭의 무거운 사선 형태와 디스커넥션된 형태로 두 가지 형을 가지는 스타일이다.

<그림XI - 11> 은 사람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부분가발과 오브제를 사용하여 연출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림XI-1>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4」



<그림XI-2>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2. 10」



<그림XI-3>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7」



<그림XI-4>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7」



<그림XI-5>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7」



<그림XI-6>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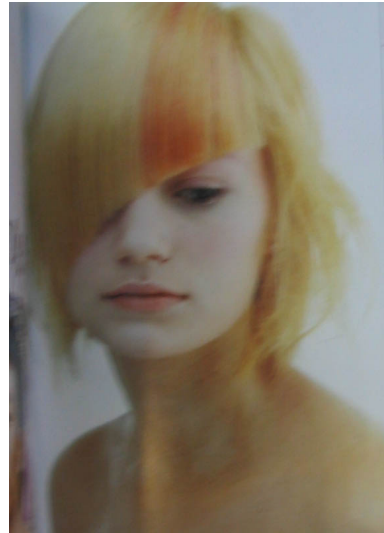
<그림XI-7>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8」



<그림XI-8>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6」



<그림XI-9>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비달사순 50년사」



<그림XI-10>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그림XI-11>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0. 10.」

(2) 질감적 측면

탈구성에서 질감적 표현은 거친 질감과 통일된 한가지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스타일에 여러 가지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XI - 12>는 강한 질감과 테크닉에 해체를 주어 좀 더 가볍고 소프트한 질감 처리를 강조하여 층을 많이 내는 질감표현을 하였다.

<그림 XI - 13>은 뒷머리부분은 질감처리 아주 가볍게 하였는데 반해 앞머리는 층이 없이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질감을 모두 표현하여 통일성에 대한 해체를 준 스타일이다.

<그림 XI - 14>는 앞머리를 불규칙하게 모양내어 무겁게 자르고 백 포인트 부분은 길게 디스커넥션으로 컷트하여 가볍게 질감 처리한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앞머리가 가지런하고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한 스타일이다.

<그림 XI - 15>은 여성의 헤어는 잘 짜여진 구조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시켜 아주 거친 질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XI - 16>은 포스트 펑크(Post Punk)를 나타낸 스타일로 헤어스타일이 중력으로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시켜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듯한 헤어스타일을 표현하였다.

<그림 XI - 17>는 한 가지 틀에 얽매인 여성적 스타일 보다는 거친 질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성을 나타낸 탈구성적 스타일이다.

<그림 XI - 18>은 사이드의 길이가 다른 비대칭 헤어스타일로 기존의 양쪽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헤어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XI - 19>는 머리카락으로 어떤 스타일을 연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머리카락이 하나의 오브제가 되어 붙여진 스타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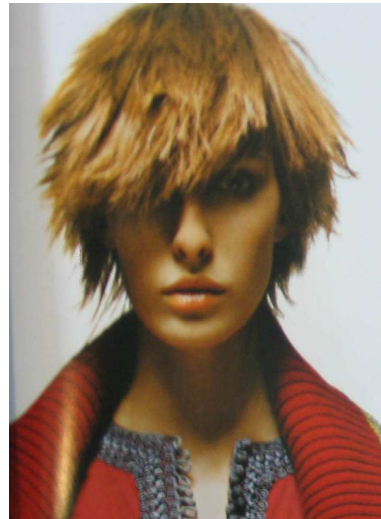
<그림XI-12>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4」



<그림XI-13>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4」



<그림XI-14>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3. 8」



<그림XI-15>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3. 10」



<그림XI-16>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2」



<그림XI-17>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2, 9」



<그림XI-18>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2」



<그림XI-19>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0. 10.」

(3)색상적 측면

탈구성적 스타일에서 색상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색의 조화를 표현하는 기존의 색상에서 벗어나 강한 보색대비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을 헤어스타일에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XI - 20>보색대비도 아닌 전혀 다른 느낌의 색상을 사용하여 형태를 강조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림 XI - 21>은 비대칭의 사이드 모발의 결합과 방향성을 통해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는 독특한 스타일로 강한 색의 대비와 함께 사이드와 탑부분의 헤어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디스커넥션 스타일이다. 이것은 기존의 헤어컷의 구조를 바꾼 스타일이다.

<그림 XI - 22>는 불규칙한 길이로 모발의 움직임을 살리는 디스커넥션 스타일로 안쪽을 짧게 자르고 겉머리는 길게 늘어뜨리는 언더컷을 하였고, 모발 전체를 한 가지 컬러로 연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발의 어떤 부위를 2-3가지 컬러를 입히는 염색기법을 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스타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중성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XI - 23>는 붉은 색과 검정색을 사용하여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더욱 알 수 없게 한 스타일이다.

<그림 XI - 24>는 강한 보색대비를 반복하여 사용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림XI-20>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2」



<그림XI-21>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2」



<그림XI-22>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5」



<그림XI-23>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미용회보, 2003. 7」



<그림XI-24> 탈구성적 헤어스타일
「Estetica, 2004. 2」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헤어스타일에 수용되면서 어떤 변화를 주었고,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징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해체주의 표현방식 중 탈구성적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헤어 트렌드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해체현상은 성의 해체, 민족 해체, 기존 방식의 해체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성의 해체는 데리다의 해체이론 중 상호텍스트를 말한다. 이는 남·여의 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켜 성의 차이를 무효화하고 진리와 절대를 불신하며, 성의 시각자체가 해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 그리고 제 3의 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성의 남성화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의 불편을 덜기 위해 손질이 간편한 보브 스타일이 유행되면서 헤어스타일의 남성화 현상인 짧은 헤어컷가 유행되었고, 남성의 상징인 구레나룻이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났다.

남성의 여성화 헤어스타일은 여성의 상징인 긴 머리스타일, 액세서리 착용, 포니테일, 염색을 이용하여 여성의 외모와 비슷하게 연출함으로써 남성에게 주어지는 성역할을 해체시켜 남성이 헤어스타일을 여성화함으로 여성과의 동등성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제 3의성은 공유의 성이라고도 한다. 남·여 모두에게 잠재된 반대의 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남자가 긴 머리를 하였을 경우 수염을 기른다는 의상으로 남성스러움을 강조한다든지 해서 나타내고, 여성인 경우는 남성의 짧은 헤어컷을 하였을 경우 화장을 통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표현한다.

둘째, 해체주의 이론에서 중심으로의 탈피를 가진 탈현상은 서구 중심의 생각과 가치에서 벗어나 제 3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였다. 제 3세계에 대한 관심은 아프리카, 동양, 인디언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이들의 민족 고유성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이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해체되어 아프리카 풍, 동양 풍, 인디언 풍 헤어스타일로 거듭나게 되었다.

아프리카 풍 헤어스타일에는 아프로 스타일과 아프로 퍼프 스타일, 레게 스타일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양 풍 스타일로는 엷은머리와 일본의 에도시대의 수발양식인 환곡, 중국의 수발양식인 수계 등이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났다. 동양 풍 머리형태의 특징으로 업스타일 형태와 차분한 생머리, 직선적인 뺨을 한 앞머리 커트, 브레이드, 기모노 업스타일 형태, 그리고 블랙, 레드, 옐로우 골드, 비비드 톤의 컬러를 사용한 것이다. 인디언 풍 헤어스타일로 레게 스타일의 곱슬거리는 머리를 길게 땀은 머리, 푸딩그릇의 모양의 컷과 인디언의 깃털 장식, 이마에 두른 끈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셋째, 기존방식이 해체되어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데리다의 해체주의에서 기호의 재현성이 상실되면서 로고스 중심주의 이분법이 해체되어 열린 사고로 인해 불확정적으로 연출됨으로서 주관적인 미가 강조되어 표현된 것으로 핑크 헤어스타일과 키치 헤어스타일을 들 수가 있다.

핑크 헤어스타일은 기존 체계의 철저한 무질서에 의한 해체이며, 사람들의 주목과 충격을 주고자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헤어스타일로 나타냈다. 그 대표적인 헤어스타일로는 형태적 측면에서는 수탉의 벼슬처럼 곳곳이 세운 모히칸 스타일, 뾰뾰하게 세운 스파이키 스타일, 머리를 뽀뽀 깎은 스킨헤드 등이 있다. 색상적 측면에서는 개성표현, 반항심, 강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홍색, 오렌지색, 초록색의 형광물감으로 물을 들였다.

키치 헤어스타일은 욕구와 현실사이에서의 거리감과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나타나는 긴장감, 소외감, 불안감, 무력감들을 대리적 정서 체험을 통해 도피하려는 심리를 나타낸 것이다. 해체현상으로 키치 헤어스타일의 특징은 과잉장식, 기하학적인 무늬, 상표명, 만화주인공, 일상용품 등을 헤어장식으로 나타냈다.

2000년을 전·후로 헤어스타일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20세기 후반에 조형예술 전반에 영향을 준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디자인접근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헤어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기

하학적 형태 스타일에서 벗어나 형태를 가지지 않는 비기학적 형태 스타일을 말한다.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은 일정한 형태를 갖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지닌 헤어스타일에서 벗어나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불균형, 비대칭적인 스타일, 강한 보색 대비나 전혀 다른 질감의 표현과 질감표현이 고르지 않게 연출하는 개성이 돋보이는 경향들을 볼 수 있었다.

최근 비대칭적인 스타일이 대두되면서 어시메트릭 컷과 머리의 섹션들끼리 연결이 되지 않는 디스커넥션 컷, 각각의 존(zone)들이 연결되지 않는 존 컷 등으로 나타났다. 이 스타일들은 비달사순의 2000년 트렌드를 전·후로 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탈구성적 스타일인 디스커넥션 컷과 존 컷은 브런트 컷이 주는 딱딱함을 보완해주고 머리카락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주어 개인의 개성이 잘 표현될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신세대들과 독특함을 원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해체주의적 사고는 절대적 가치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창의적이며 개성있는 사고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적인 접근이 가능했고 이를 통하여 형태와 구조면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한계점으로 해체주의 이론을 헤어스타일에 접근시켜 접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탈구성적인 스타일을 사진에 나타난 단면만으로 분석하기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헤어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권택영(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서울 : 문예출판사.
- 강선영(2003). 「뷰티트랜드에 나타난 퓨전현상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주아(2003). 「21세기 헤어스타일 양상에 나타난 키치 특성에 관한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두(1994). 『대중문화론』.서울 : 나남.
- 공차숙(2002).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연구 : 히피와 펑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가연(2003). 「헤어디자인의 형태 도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1998). 「현대 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경희대대학원 박사학논문.
- 김동일(1993). 『성의 사회학』. 서울 : 문음사
- 김민수(1994).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 안그라픽스.
- 김묘영(2003).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곤(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 김용문(1993).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1998). 「한국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패션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1997). 「KITSCH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2002). 「현대 해체주의 메이크업 현상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이후 패션쇼를 중심으로」.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1995).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1996).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양식 연구 : 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일, 박남일(1994)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 미진사.
- 김현미(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호(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 민음사.
- 김혜정(1998). 「현대 건축형태 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도서출판 이바편집부(1991). 『이미용기술용어사전』. 서울 : 이바.
- 민경우(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 : 미진사.
- 박하나(2003). 「구성주의 조각을 응용한 헤어조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수(1997). 『마음은 인체의 어디에 담겨 있을까』. 서울 : 을유문화사.
- 비달사순(2001). Beauty&Health 연구회 역. 『비달사순50년사』, 서울 : 현문사.
- 빅토리아 예빈저(1988). 임숙자역. 『신체장식』. 서울 : 경춘사.
- Beauty&Health 연구회(2001). 『메이크업&스타일 100년사』. 서울 : 현문사.
- 서경희(1998). 「fashion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 양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주경(1995). 「북미 평원지역 인디언 복식을 활용한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옥(1992). 『서양복식사』. 서울 : 수학사.
- 신형선(2003). 『패션&뷰티를 위한 Color Image Making』. 서울 : 국제.
- 안현경(1996). 「20세기 머리형태에 표현된 반항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2권 제1호, p187-207.

- 앤 홀랜더(1996). 채금석역. 『의복과 성』. 서울 : 경춘사
- 양세은(1993).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 언어적 개념과 실내환경 디자인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창섭(1997). 「키치(kitsch)현상을 통해 본 제품의 사회·문화적 기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정(1996). 「해체주의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 이주행(1995).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 분석 : 서구 여성의 사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정(1996). 『패션마케팅& 패션트렌드 분석』. 서울 : 교학연구사.
- 이혜정(2004). 「현대 트렌드 분석에 따른 헤어·메이커업 디자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광숙(1998).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선정 외3(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 정현숙·정홍숙(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호.
- 조말희(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상기(1999). 『커트論·學』.서울 : 고문사.
- 하경연(2002). 「헤어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어커트를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석우(1994). 『입체조형』. 서울 : 미진사.
- 한석우(1994). 『입체 예술형태와 공간』. 서울 : 미진사.

<국외문헌>

Nikos Stangos, Concepts of Modern Art, World of Art
Hector Obalk(1984). Les Mouvement de Mode. Paris.
Polhemus, Ted(1995). Street Style, Lodon, Thames and hudson.
Jones, Dylan(1990). Haircults, Lodon, Thames and Hudson.
PIVOTPOINT INTERNATIONAL, S.A Sculpture Ladies.

<잡지>

ESTETICA. Korea.(2002-2004)
미용회보(2002-2004)

<인터넷>

<http://www.peluquerias.co.kr>
<http://www.wella.co.kr>
<http://www.roleal.co.kr>
<http://www.estetica.co.kr>
<http://www.imagesearch.naver.com>
<http://100.naver.com>
<http://midea.news.daum.net>

ABSTRACT

A study on Discompositional Hair style approach in Deconstructionism

Kim, Mihyang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As our society, which became more various and complicated in the 21st century, strengthens the desire to pursue individuality and variety for self-identity in the chaos of belief and sense of values. Art is also being expressed as free style on the basis of abundant imagination and spiritual inspiration escaping from the previous formal style. According to this demand of the times, hairstyle has tried to form mental sympathy by deconstructional philosophy. It is possible to various forms of designs by creative-tested attempting with re-explanation of original meaning.

Deconstruction shown in hairstyle is divided into deconstruction of sex, deconstruction of race and individuals of existing method, and it shows new styles beyond fixed ideas with having an effect on one of formal arts, hairstyle. Also, of various deconstruction methods of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design expressed in hair style are

analyzed with examples indicated in hair trends through non-formational design approach.

In this thesis, various deconstructional phenomena caused by the deconstruction of the desire of humanity restoration, the desire of returning to nature and existing standards by the change of recognition and thoughts as the repulsion for the chaos of existing sense of values and non-natural material civilization in the diversifying modern society.

Through this study, I noticed that constitutional hair style, accepted deconstruction of escaping from the hair style of formal beauty, could possible new forms of creative styles. I hope futuristic styles with developable and valuable designs from getting out of fixed ideas will be made by this study.